

이집트 장애인 상황분석 및 선교를 위한 제언

2005 MFR 훈련팀 7기

종합 보고서

훈련팀 7기 종합 보고서 목차

1. MFR 및 7기 훈련팀 소개
1) 개요
2) 목적
3) 목표
4) 연혁
5) 전체일정
2. 이집트 개관
3. 카이로 개관
4. 알렉산드리아 개관
5. 주제 보고서
1) 도입
2) 기관별 인터뷰 정리
3) 이집트 장애인 상황분석 정리
ㄱ) 이집트의 장애인 인식
ㄴ) 장애인복지형태
ㄷ) 장애인 복지기관 현황
4) 장애인선교를위한제언
5) 주제보고서 평가

1. MFR 및 MFR 7기 훈련팀 소개

(1) MFR이란?

Middle-East Field Research는 한동 아시아 지역 연구소의 산하 기관으로서 CFR(China Field Research) 와 SFR(South East Field Research), IFR(India Field Research), SPFR(South Pacific Field Research)와 함께 만들어진 지역 현장 조사 팀이다. 2001년 5월말 중동 지역을 위한 리서치팀이 구성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1기 MFR이 중동 5개 지역 리서치를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 MFR의 목적

MFR은 중동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중동 지역의 실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영적, 일반적인 상황과 필요를 알린다. 아울러 단기 미션팀 활동을 통하여 현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며, 중동 지역의 중보자들과 네트워크하며 궁극적으로는 선교 헌신자를 세우고 동원함으로써 중동 지역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MFR의 목표

Worshiper(예배자)
Field Researcher(현장 전문가)
Reporter(보고자)
Intercessor(중보자)

(4) MFR의 연혁

2001년 5월, CFR 5기 훈련강의 가운데 중동지역으로 콜링
2001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 8시~11시까지 정규모임 시작
2001년 12월 20일~2002년 1월 25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리서치
2002년 4월 4일 2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2년 7월 8일~8월 8일 터키, 이란 리서치
2002년 9월 18일 3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1월 7일~2월 5일 아랍 에미리트 리서치
2003년 4월 4일 4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7월 7일~8월 10일 요르단, 이라크 리서치
2003년 9월 19일 5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12월 27~ 2004년 1월 18일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서치
2004년 3월 25일 6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4년 7월 27일~8월 15일 이란 리서치
2004년 9월 23일 7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5년 1월 11일 ~ 2월 2일 훈련팀 7기 이집트 리서치

(5) MFR 훈련팀 7기 조직

(6) MFR 훈련팀 7기 훈련팀 전체일정

- 10주 훈련(2004년 9월 23일 ~ 11월 25일)

FR 훈련	날자	강의	강사
1주	9.23(목)	OT: FR spirit	사 강 간사
2주	10.1(금)~10.2(토)	1차 캠프 (예배, 묵상, 중보기도)	조준모 교수님 정동철 간사님 김경진 간사님
3주	10.7(목)	십자가의 도 1	김학철 교수님
4주	10.14(목)	십자가의 도 2	김학철 교수님
5주	10.21(목)	십자가의 도 3	김학철 교수님
6주	10.28(목)	선교적 관점에서 본 지역연구	마민호 교수님
7주	11.5(금)~11.6(토)	2차 캠프	여주봉 목사님
8주	11.11(목)	성경적 정탐 훈련, 이론과 실제	김 경 총무님
9주	11.18(목)	리서치 스피릿과 기법	사 강 간사
10주	11.25(목)	공동체	김혁수 목사님
11주		공동체별 러브피스트	

- 10일 합숙(12월 21일~ 12월 31일)

시간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6:30		기상 및 체조										
7:00		공동체별 QT										
8:00		아침 식사										
9:00		리서치 기법 (사 강)	성령 세미나 (이길수)			특송연습	리서치와 중보기도 (서일동)	리서치와 영적도해 (서일동)				
10:00					성탄 예배	주일예배						
11:00												
12:00		점심 시간										
1:00		말씀통독	성령 세미나 (이길수)	말씀통독			말씀통독	말씀통독	말씀통독	말씀통독		
1:30												
2:00				필드 전도 법 및 전 도 실습 (김혁수)								
3:00					SUM							
4:00												
5:00												
5:30			SUM	SUM				SUM	SUM	SUM	SUM	
6:00	장소셋팅	저녁 시간										
7:00	개회 예배	성령 세미나 (이길수)	부서모임	부서모임			부서모임	부서모임	부서모임	파송예배		
8:00	전체 OT			성탄전야								
9:00	팀별OT			-공동체								
10:00	공동체 별 전략회의											
11:00	전략회의											
12:00	취침											

● 이집트 리서치 (1월 11일 ~ 2월 2일)

날짜	내용
1월 11일	카이로 도착, OT, 콕틱교회 Ruth 수녀님 인터뷰
1월 12일	정부청사방문, 관련기관 전화연락,
1월 13일	School of Nardin Association 방문, 원장과 인터뷰
1월 14일	Ruth 수녀님과 두 번째 인터뷰
1월 15일	천사원 방문, 인터뷰
1월 16일	오전예배, 오후예배(카이로 한인교회)
1월 17일	Coptic day care center 방문, 인터뷰
1월 18일	Flower Center 방문, 인터뷰, 카이로 박물관 관람
1월 19일	사카라 피라미드, 기자 피라미드, 므깃담 동굴교회 방문
1월 20일	올드카이로(이집트 최초 교회, 예수 피난교회)방문
1월 21일	알렉산드리아로 이동, 알렉산드리아 둘러봄(폼페이 기둥, 로마원형극장,성 마가교회)
1월 22일	보고서 작업
1월 23일	오전예배(사라이교회)
1월 24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방문(자료검색), 모스크 방문
1월 25일	Fairs haven Safwat 목사님 인터뷰
1월 26일	Caritas-SETI 센터 방문, 인터뷰, St.Mark center 원장 인터뷰
1월 27일	보고서 작업
1월 28일	시와로 이동
1월 29일	사막투어
1월 30일	알렉산드리아 도착,몬타자 공원 방문, 카이로로 이동, 오후예배
1월 31일	Khan El Kalili 에서 중보자 선물구입
2월 1일	인천으로 이동
2월 2일	귀국

보고서합숙

2월 2일 ~ 2월 7일



2. 이집트 개관

1. 국명

이집트 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2. 수도

카이로 :인구 약 1,600 만 명 (2003.1)

주요도시: 알렉산드리아, 룩소, 수에즈,
포트사이드, 아스완

3. 면적

1,102,000 km² (남한의 약 10.15배)

- 전국토의 95%가 사막
- 거주 가능 면적은 나일 강변을 주위로 약 3%정도

4. 기후

카이로를 비롯한 델타지역은 반 사막기후,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 그 외 지역은 사막기후이다.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 동 지중해 연안의 극히 일부 지역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지만, 그 이외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겨울은 비가 많고, 바다도 사납다. 그리고 여름은 "함신"이라고 불리는 열풍이 불어오고, 때때로 "소비아"라고 불리는 모래 폭풍도 거칠게 불어오곤 한다.

전국토의 97%가 사막인 이집트는 강 서편에 광대한 리비아 사막이 형성되어있고 동편에는 길고 좁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으며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는 전지역에 걸쳐 시나이 사막이 펼쳐져 있다.

5. 인구

7,611 만명 (2004.6),

- 아랍권 국가중에서 가장 많음.
- 인구의 50%가 도시 거주 (그 중 20%는 카이로 거주)

6. 민족

이집트인(Egyptian), 베드인(Bedouins), 베르베르인(Berbers)으로 구성된 햄족이 99%를 차지하고, 그리스인, 누비안, 아르메니아인, 유럽인(Italian and French)등의 소수 민족 1%

7. 정치

사다트 대통령(1970~81)은 소련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의 유전 지역을 획득케 했다.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으나 많은 아랍국가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또한 국내의 회교 근본주의자들까지 그 조약을 반대하여 이집트는 중동에서 고립되고 사다트는 암살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무바라크 대통령 정부는 조심스럽게 정치 자유화를 도입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8. 경제

화폐단위-이집트파운드(£ E)

GDP per capita(ppp) - \$4000('04), 1\$ = LE 5.75 (2004.12)

실업 비율 : 9.9%('04)

9. 교육

의무교육 9년(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

15세이상 읽기 쓰기 가능 인구('03):

전체: 57.7%

남자: 68.3% 여자: 46.9%

10.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94%, 수니파)

콕틱교,기독교,복음주의 (6%, 실제로는 약 12%로 추정)

11.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및 불어 통용(식자사회)

12. 시차

GMT + 2 (한국시간보다 7시간 늦음),

5월-9월간은 썸머타임실시로 6시간 차이남 (GMT+3)

13. 음식

이집트의 전통음식으로는 켈타, 케밥, 물루키아, 포울, 타메야 그리고 쿠샤리 등 이집트의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집트 음식은 인종의 도가나라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역사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 지방 음식은 그리스, 터키,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지의 음식들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 문화와 취향에 맞도록 변형시켰다. 음식들은 주로 천연 과일과 야채, 계절에 따른 신선한 향료로 만들어 대부분 심플하면서도 몸에 좋다. 북 아프리카 요리의 영향을 받은 남부지역 음식은 북부지역 음식보다 더욱 향기롭다고 할 수 있는데, 두 지역의 음식 모두 특별히 맵지는 않다.

14. 옷차림

4월 -10월엔 여름옷이 필요한데, 사막의 나라이므로 가능한 한 신체를 감싸주며 바람이 잘 통하는 긴 팔 윗옷과 긴 바지를 입는다. 또한 챙모자, 선글라스를 챙기며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식염수를 소지하고 난시인 사람은 안약을 필히 챙긴다. 겨울철에는 봄 가을용 긴 팔 티셔츠에 니트 셔츠 한 벌 여름용 얇은 티셔츠 한 벌을 챙기면 카이로에서 아부 심벨까지 여러 지역을 커버 할 수 있다.

3. 카이로 개관



1. 도시명

카이로(Cairo)

아랍어로 승리를 뜻하는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이자 아랍권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2. 카이로

카이로는 올드 카이로와 이슬라믹 카이로로 나뉜다.

이슬라믹 카이로는 과거 이슬람의 중심지였던 카이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수많은 모스크와 커다란 시타델(성), 이슬람 전통 시장 등이 있다. 올드카이로는 콕트 카이로라고도 하는데 예수피난교회, 성 마가 교회를 비롯한 여러 콕트 교회들이 있다.

3. 위치

이집트 나일강(江) 삼각주의 남단에서 약 25Km 남쪽 나일강 우안에 위치한다.

4. 인구

약 1,600만 명 (7,611만 명의 인구 중 20%는 카이로에 거주)

5. 기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평균 기온 (°C)	18	21	24	28	33	35	36	35	32	30	26	20
최저 평균 기온 (°C)	8	9	11	11	17	20	21	22	20	18	14	10
평균 강수 (mm)	9.9	11.9	10.7	14.2	18.2	20.6	23.7	23.6	22	18.4	14.3	12.1

3-10월은 반팔 셔츠로 다닐 수 있다. 10-3월은 긴팔 셔츠에 가디건, 스웨터가 필요하다.

특히 이 시기는 일몰 후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주요산업

예로부터 정치·군사·무역·학술·문화의 중심지로서 번영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방적·식품가공 등의 경공업도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철강·조선·철도차량·화학비료 등의 중공업, 석유정제·석유화학공업 등도 발달하여 수에즈의 정유공장과 송유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7. 교통

지하철이 건설되었고, 북서쪽 약 180 km의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하여 포트사이드·이스마일리아·수에즈·홀완과는 철도와 국도로 연결되며, 카이로-이스마일리아의 운하 등 나일강과 그 삼각주 지대의 수로에 의한 수운도 발달하였다. 교외의 헬리오폴리스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8. 교통수단

①지하철

지하철은 카이로 교통 수단 중 쾌적한 교통 수단 중의 하나이다.

Midan Ramesses~Said Zaghlul 사이를 운행한다.

티켓 요금은 25~50 피아스트르 정도이다.

신식이고 깨끗하고, 빠르며 매일 05:30~01:00까지 운행한다.

②버스

카이로의 대중버스를 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 혼잡스럽고, 버스 운전사들은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 규칙적으로 정차하지도 않으며, 소매치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렴히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교통수단이다.

③미니 버스

버스와는 대조적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붐비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다.

요금은 25~50 피아스트르 정도이다.

④택시

이집트 교통 수단 중 가장 뛰어난 교통 수단으로,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개인 택시와 서비스(공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서비스(공용) 택시는 정해진 노선을 정찰제로 운행하며, 저렴하지만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 택시는 다소 비싸긴 하지만, 아주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러시 아워에는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알아두도록 한다.

⑤리버 택시(River Taxi)

파란색의 유리 덮개로 된 리버 택시는 Maspero Station~ University Bridge, Manyal, Roda, Giza, Old Cairo까지 운행한다.

⑥보트

이집트의 나일강에는 여행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동 순항 선박들이 많다. 이집트 전망을 감상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노선이 룩소르~카이로 사이이다.

티켓 요금은 성수기(10월~4월)에 가장 비싸다. (비수기 6월~8월이 가장 싸다.)

⑦도보

카이로에서는 걷는 것이 안전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와 하수구 구멍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길을 건널 때에 유의하도록 한다.

9. 특징

카이로에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 시내에는 전통적인 구시가(올드카이로)와 신시가(이슬라믹카이로)로 나뉘며, 신시가지에는 정부청사·회사·은행·호텔 등이 있다. 나일강 서쪽에는 피라미드와 스피נק스가 있고, 시내에는 옛 성채와 아므르사원(642), 알라즈하르 사원(970)을 비롯하여 많은 이슬람 사원과 궁전 등의 건축물·박물관, 그 밖의 문화시설이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라즈하르대학은 970년 설립되었으며 그 밖에 카이로대학(1908년 설립)·아메리카대학(1919년 설립)·아인샴스대학(1950년 설립된 옛 이브라힘파샤대학)의 4개 종합대학 외에도 많은 고등교육기관·조사연구기관이 있다. 아랍 연맹의 본부가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랍의 망명정당 사무소도 설치되어 있어 망명 정치가의 활동이 활발하다.

10. 역사

카이로라는 이름은 969년부터 불렸으나 도시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는 현재의 카이로 남쪽 교외, 나일강 좌안에 해당하며, 로마·비잔틴 시대에 형성되었다. 바빌론이라고 하던 도시는 지금의 구(舊)카이로(Old Cairo: Misr al Atika)에 있었다. 또한 아랍인이 이집트를 정복하였을 때 정복자 아므르 이븐 알아스가 바빌론의 동쪽 가까이에 새로운 도시 푸스타트(Fustat)를 건설하고, 9세기에 이집트가 바그다드에 종속하였을 때에는 푸스타트의 북동쪽에 접한 곳에 나중에 이집트의 지배자가 된 아마드 이븐 톨룬이 새로이 카

타이(Katai)를 건설하였다. 10세기에 마그레브를 본거지로 하는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였을 때 장군 조하르 알루미가 카타이의 북쪽에 새 수도 카히라(Kahira)를 건설하였는데(969), 카히라는 '승리'라는 뜻으로 카이로의 어원이 되었다. 이곳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경제적으로도 다수의 인구를 부양하는 데 적당하였기 때문에 고대부터 도시가 건설된 것이지만 같은 이유로 카히라라는 지명이 되고 나서도 지배자의 변동은 심하였다. 아이유브왕조(1169~1250) ·맘루크 왕조(1250~1517)의 지배를 거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통치할 때에는 문화가 정체하였으나, 1798~1801년 프랑스 점령시대에는 시가가 확장되었고, 영국과 터키의 연합군이 카이로를 프랑스에서 탈환하여 터키의 주권하에 메메드 알리 왕조의 수도가 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서쪽으로 확장되었다. 1882년 반(反)터키·반영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진주하고, 이집트의 영국보호령화(1918), 형식적인 독립(1922) 등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1946년까지 카이로를 지배하였다.

11. 카이로 내의 유명명소

이집트 박물관 (Egyptian Museum)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의 하나인 이집트 박물관은 투탕카멘 왕의 보물을 비롯하여 3000년 역사의 고대이집트 문화유산 등 가장 풍부한 유물을 갖추고 있다.

기본 입장료: 20파운드 (학생 10파운드)

오픈 시간: 9am to 4.45pm daily

추가 입장료: The Roayl Mummy Room 40파운드 (학생 20파운드)

일반 카메라: 10파운드

비디오 카메라: 50파운드

가는 방법: Midan Tahrir와 메트로 Sadat에서 가깝다. downtown 숙박시 도보로 방문가능

콥틱 박물관

1세기에서 7세기에 걸친 고대 기독교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카이로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근처에 있고 예술과 종교에서 콥틱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타델 (Citadel)

십자군을 격퇴하기 위한 거점으로 1176년 건설했다는 견고한 요새 씨타델은 아랍어로 "칼라아" 라고 한다. 모카탐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카이로 시내의 모든 정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씨타델 안쪽 공연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스피 댄스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

가는 방법: 혼자서 갈 경우 택시 5파운드면 된다. 여러명이서 가게 보통 두당 1파운드를 요구한다. LP에는 downtown에서 3km에 위치한 걷기 좋은 거리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5km정도는 되므로 그냥 교통수단을 이용함이 좋을 듯 하다. 버스로는 No.174 가 Midan Ramses(미단 람세스)를 지나 시타델까지 향하고, No.173 가 Midan Falaki(미단 팔라키)에서, No.905 는 피라미드와 연결된다. No. 57 과 No.951 은 Midan Ataba(미단 아타바)와 No.54 미니버스는 숙소와 가까운 Midan Tahrir에서 출발하나 승차가 어렵다.

입장료: 20파운드 (학생 10파운드)

open: 8am to 6pm

칸 엘-칼릴리 (Khan al Khalili)

칸 카힐리는 카이로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Khan" 의 뜻은 시장이 라는 말로서, 카힐리 시장이라 부르는게 우리말에 맞지만, 다들 그냥 칸카힐리 시장이라고 호칭한다. 이곳에서 갖가지의 기념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카이로 타워 (Cairo Tower)

게지라 섬에 상 이집트의 상징인 로타스(연꽃)모양의 카이로 타워가 있다. 높이가 187m로

콘크리트 구조물로는 동양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근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이 탑 위에서 카이로의 모든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다.

입장료: 30파운드 (학생할인 없음)

카메라: 20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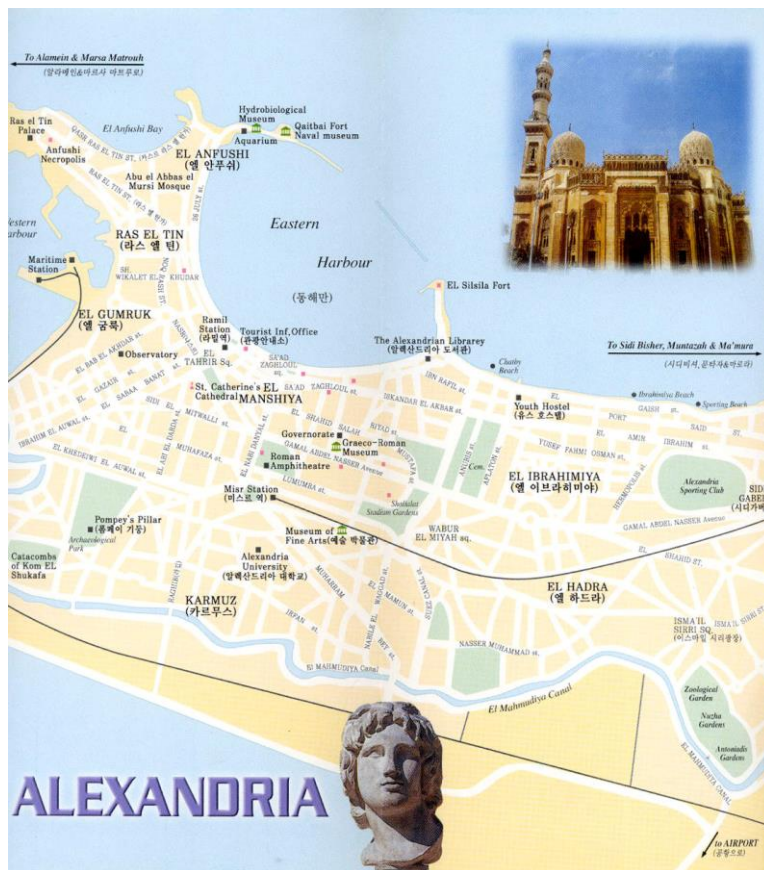
가는방법: 메트로 opera역에서 하차, 도보로 10분.

기자 피라미드 (Giza Pyramids)

입장료 : 20파운드 (학생 10파운드) 기자피라미드는 카메라입장료가 없다. 단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갈 때에는 각 각의 피라미드마다 따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10파운드의 카메라 사용료를 내야한다.

가는방법 : Egyptian Museum 앞에서 탑승, 에어콘버스 No355, No.357이 2파운드에 기자 피라미드 아래까지 운행된다. 택시로는 downtown에서 피라미드까지 15~20파운드 메트로 Giza역에서 5파운드면 충분

4.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개관



1. 도시명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 알렉산드레이아(Alexandreia)라고도 한다. 이집트어로는 알리스 칸다리아(al-iskandaryah)라고 부름.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대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명칭이다.

2. 면적: 314km²

3. 위치: 카이로 북서쪽 약 180km 지점, 나일 하구에서 서쪽으로 32km 지점의 지중해안에

위치한다.

4. 인구: 374만 5800명(2004년 기준)

5. 기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온 (℃)	최고	15.4	17.3	21.4	25.6	29.4	32.9	33.9	34	31.6	26.8	20.8	16.4
	최저	3.8	5.2	9.1	13.2	17.2	20.9	22.2	21.9	19.1	12.7	7.7	4.6
강수량 (mm)		125	131	145	134	135	112	130	101	80	107	115	164

6. 주요산업

주요 수출품은 면화이며, 카이로와는 철도·도로·내륙수로·항공로로 이어져 있다. 자동차·기계·제동(製銅)·시멘트·석유정제 등의 공업이 활발하고, 조선소·목화거래소도 있는 상공업의 중심지이다.

7. 특징

이집트 최대의 무역항인 이곳은 나일강 삼각주 서쪽에 있는 이집트 제2의 도시로, 지중해와 마레오티스(마류트)호(湖) 사이의 좁은 모래톱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기후풍토가 좋아 왕제(王制) 시대에는 여름 수도였고, 지금도 휴양·관광지로서 유명하다. 알렉산드리아대학교(1942년 창립)와 그리스로마박물관 등이 있다.

8. 교통

교통수단

트레인- 지하철이 다니는 카이로와 달리 알렉산드리아에는 기차가 다닌다. 기차가 역에 정차하면 알아서 기차칸에 올라 타면 된다. 차장이 돌아다니며 돈을 받는다. 1인당 75피아스트

트램- 전차. 1인당 25피아스트.

택시- 대부분 5파운드~10파운드 이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카이로와 달리 차가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도시마다 각각 정해진 택시의 색이 있다.).

9. 역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국(帝國) 내에 세운 도시 중 자기 이름을 붙인 것은 알렉산드리아 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이다. BC 331년, 대왕의 이집트 원정 때 나일강 하구에 건설되었으며, 나중에 프톨레마이오스(家)가 다스리는 이집트의 수도가 되어,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경제의 중심으로서 발전하였다.

정연(整然)한 도시계획에 따라 만든 도읍으로 왕궁·세라피스신전·파로스섬의 등대 등이 있었다. 특히 왕가의 보호정책 때문에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고, 자연과학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무세이온(학문연구소)과 그 부속 도서관 부속도서관·천문대·해부학연구소·동물원 등이 설립되었으며, 기하학의 유클리드, 지리·역사·자연과학의 에라토스테네스, 지리학의 프톨레마이오스, 문헌학의 칼리마코스 등의 대학자를 배출하였다.

한편, 남해무역의 발전과 함께 무역항으로서도 번영을 누렸으며, 인도·아라비아·아프리카의 산물과 이집트의 국내산물을 지중해 각지에 보내는 대수출항이 되었다. 또 유리공업을 비롯한 공업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카이사르 점령한 후부터 제1차 번영기는 끝났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家)의 계획은 이 도시를 세계제국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으나, BC 31년의 악티움 해전BC 30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멸망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로마 제정기에는 다시 번영하였으나, 이 무렵부터 유대인의 식민지가 된 느낌을 가졌으며, 그리스도교도 전파되어 종교적 분쟁의 거리로 화하였다.

3세기에는 신(新)플라톤파(派)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클레멘스·오리게네스 등의 신학자가 탄생하였다. 그 후 오래도록 학술의 중심이라는 위치를 유지하였으나, 640년 이후의 아랍 지배하에서는 쇠퇴하였다. 1517년부터는 오스만투르크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1798~1801년의 나폴레옹 1세 점령 때에는 작은 어촌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19세기로 접어들어 메메트 알리가 지배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번영을 되찾았다.

10. 성경에서의 알렉산드리아

- 구약성서의 히랍어를 쓰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또한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여기서 초기의 신약 본문을 편집했었다.
- 아볼로의 출신지(행18:24).
- 또한 통상의 요지였고 여기서 로마로 곡물이 수출되었다.
-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수출 선박에 편승한 일이 있다(행27:6, 28:11)

11. 명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BC3세기초에 프톨레마이오스왕조에 의해 세워졌다. 그 당시 전세계에서 모은 약50만권분량의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여러 문서들이 그리스어(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그 중 70인역 성경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AD 645(642, 파괴시기에 관해 학자들간에 논란이 있다)년 모슬렘 정복자 오마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없지만 유니세프에서 예전 그 도서관을 기리며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건축하였다. 우리 팀은 UN측의 이집트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자 방문하였다. UN측의 자료 외에도 여러 문서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UN측의 이집트 장애인에 대한 자료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로마 원형극장

당시 도시 안에 400여개 정도의 극장이 있었다고 한다. 조금 과장된 감이 없지 않으나 확실히 문화가 융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조그만 원형극장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관객석이 원형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원의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그대로 반사되어 돌아온다.

5. 주제 보고서

① 리서치 방향

현재 이집트 전체인구(약 7600만 명) 중 약 10%인 700만 정도는 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경제적, 제도적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적절한 치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지 장애인을 돕는 단체와 기관이 존재하지만, 그 수준이 장애인의 수에 비해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집트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문화적, 경제적 실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복지 상태, 특수 교육과 관련된 이집트 현황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회와 선교기관, NGO 조직들이 이집트 장애인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기초 자료 구축이 이번 리서치의 방향이다.

② 리서치 목표

장애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가족의 입장과 처지를 인터뷰한다. 다음으로, 관공서와 대학,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 구조와 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특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시급한 필요가 어떠한지 분석하고, 선교 기관이 장애인의 효과적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애인들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부가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기초적 지역 조사 한다.

③ 조사 일정

1월 11일(화) - 카이로에 도착, Al-Demerdash에 있는 Coptic Orthodox Church의 장애인 담당 사역자 sister Ruth와 인터뷰

1월 12일(수) - 후쿠마(정부청사)에서 장애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얻지 못함.

1월 13일(목) - Al-Malek as-Saleh의 School of Nardeen Association 방문 및 클레어와 인터뷰, Vocational School 방문 및 Holland 사역자 Arre와 인터뷰

1월 14일(금) - Ruth수녀님과 2차 인터뷰 및 Volunteer 선생님들과 인터뷰

1월 15일(토) - Shubra에 있는 천사원 방문 및 김용락 목사님과 인터뷰

1월 17일(월) - Ezbet al-Nakhl에 있는 Copitic Orthodox Church 의 지원으로 설립된 Daycare Center에 방문 및 인터뷰

1월 18일(화) - 무까담의 Flower Center에 방문

1월 20일(목) - 알렉산드리아로 이동

1월 22일(토) – 인터뷰 내용 정리

1월 24일(월) –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방문 및 자료 검색. 인터뷰 내용 정리

1월 25일(화) – Fair Heaven의 Safwat 협력 목사님과 인터뷰

1월 26일(수) – Caritas 방문 및 인터뷰, St. Mark Church의 담당자 아드리와 인터뷰

1월 27일(목) – 인터뷰 내용 정리

④ 도입

이집트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을 지닌 기관들을 방문하였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공공복지단체, 종교단체 산하의 장애인 복지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단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우리는 각각의 분류별로 대표되는 기관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이집트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⑤ 기관별 인터뷰내용 정리

ㄱ. 정부 산하 기관


- 국공립 장애인 학교(국립장애인학교 선생님 Rami 와 인터뷰)
- 4세에서 6세부터 18세까지 교육을 받는다.
- 음악, hand craft등을 교육한다.
- 맹인과 농아인의 경우만 교육을 시킨다.
-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모든 기관과 회사에서 5%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매일 출근할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에 있게 하고 봉급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과잉보호). 이집트인들은 매우 감정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돕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제대로 돕는 방법을 모른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다 무료다. 맹인의 경우 지하철을 반값으로 사용. 2000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실시 되었다.

ㄴ. 종교단체 산하 기관

A. 콥틱

<p>Coptic day care center</p>	 <p>위치:Ezbat El Nakhl역에서 10분 거리 쓰레기 마을 내의 콥틱교회 안에 위치.</p>
<p>시설개요</p> <p>이 시설은 콥틱 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한 시설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생활 전반적인 지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리치료 시설을 가지고 있어 일부 신체장애를 동반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기도 한다.</p>	
<p>시설</p> <p>오전, 오후로 나누어짐 오후는 2개의 학급으로 구성(4~8세<6명>, 8~14세<5명>) 3분의 선생님, 2분의 디렉터(모두 자원봉사자)</p>	
<p>연혁</p> <p>2003년도에 콥틱에서 시작(라니아<콥틱……>와 자원봉사자) 운영은 자립적으로 하고 있으나 콥틱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p>	
<p>운영</p> <p>콥틱교회에서 지원을 받음. 자원봉사자 들에게도 돈을 지불하지만 큰 액수는 아님.</p>	
<p>교육대상</p> <p>20명의 아이들(4~15세, mental handicaped) 9명은 오전(mental) 11명은 오후(신체장애 동반) 콥틱기독교인 아이들만 받는다. 오전에 오는 아이들: 매일 나온다. 약간의 돈을 지불함. 오후에 오는 아이들: 수요일과 토요일에 온다. 돈을 내지 않는다.</p>	
<p>교육과정</p> <p>self care, motion, kitchen training, relation subject, pray, art(color, …….) 매달 1회 모든 아이들이 모여서 Open day(여러 가지 활동을 함)를 연다. 매 여름에는 컨퍼런스를 열어서 거의 모든 센터의 직원들, 아이들과 가족, 친척들이 모임 매년 말에 졸업파티가 있다.</p>	


<p>St. Mark center, Rashid 인터뷰 대상: 아드리</p>	 <p>위치 : 전화번호 참조</p>
<p>시설개요</p> <p>이 기관은 콕트 산하의 기관이다. 그러나 콕트에서 주체적으로 계획하여 세워진 기관이 아닌, 아드리가 집이 없는 장애아들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지금의 St. Mark center 가 된 것으로 지금까지 돌아본 여러 일반적인 기관의 시작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돌보고 있는 52명의 아이들 대부분이 정신지체 장애아로 self care, 간단한 경제활동, Sports activity, Academic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p>	
<p>시설</p> <p>현재 52명의 아이들, 20명의 교사, 8명의 직원으로 구성. 오전과 오후로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음(오전: 8:30am~2:00pm, 오후: 5:00pm~)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p>	
<p>연혁</p> <p>2000년에 9명의 아이들과 4명의 교사, 3명의 직원으로 시작. 집이 없는 장애아들을 모아서 시작. 1년 후에 27명의 아이들, 15명의 교사로 늘어남. 현재 52명의 아이들, 20명의 교사, 8명의 직원으로 구성.</p>	
<p>운영</p> <p>여러 Christian ministry 에서 후원을 받는다. 시설 준공은 의 NGO단체에서 후원하였다. 한 달에 봉급으로 7000LE(Egyptian pound), 식비로 1000LE가 지출된다. 숙식료를 지불해야 하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p>	
<p>교육대상</p> <p>6세 이상의 정신지체 장애아(그 중 3명의 아이는 신체장애를 동반) 종교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받는다(무슬림 아이들이 12명). 17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다. 지원자를 받을 때 장애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받는다. 고아들은 무료로 받는다.</p>	
<p>교육내용</p> <p>self care, 간단한 경제활동, Sports activity, Academic한 교육</p>	
<p>교사</p> <p>콕트교회 안의 training course를 이수하였다. 사회복지 전공자, 특수교육 전공자.</p>	

B. 복음주의교단(이집트 내에 있는 교단 중 하나)


C. 장로교

<p>Fair Heaven 인터뷰 대상: Safwat 목사님</p>	<p>사진 및 약도</p>
	<p>위치:</p>
<p>시설개요</p>	
<p>알렉산드리아 사라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p>	
<p>구성</p>	
<p>70명의 선생님 (모두 크리스천) 200명의 아이들 (그 중 70%는 모슬렘) - 정신 지체 장애인. 장애인들 수업시간: 오전 9시~오후 1시 강의실 당 4~8명의 학생</p> <p>*Group home : 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보조를 못하는 경우, 장애인들은 평일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Fair Heaven에 머무른다. 주말에 집에 돌아간다.</p>	
<p>시작</p>	
<p>1990년 Fair Heaven 운영 시작. 사라이 교회에서 주로 지원하여 시작한 복지 시설로서 독립,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담당 목사님: 긴디 목사님</p>	
<p>운영</p>	
<p>Servant 들이 두 명씩 돕는다(??? 다시 듣자) 사라이 교회가 돕는다. 다른 곳으로부터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된다.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 지원도 없다. 교육 수강료: 약 135 파운드(확실히 모름)</p>	
<p>교육내용</p>	
<p>기초교육에서 발전하여 목공일을 가르치고, 바느질, 페인팅을 가르친다. 또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한다. 그 결과로, 장애인들이 공장에 취직하거나, 농구 선수가 된 사례가 있다. 선생님을 위한 기독교 교육(성경 공부)은 있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철저하게 장애인 복지 기관으로서 초점을 맞추어 운영한다.)</p> <p>*선생님 교육 방법 - 스웨덴에 가서,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돌아오기도 한다.</p>	

D. 감리교

<p style="text-align: center;">천사원 인터뷰 대상: 천사원 원장님(김목사님) 인터뷰</p>	
	<p>위치:</p>
<p>시설개요</p>	
<p>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한 기관이다. 애급 한인교회의 제정 후원과 감리 교회에서 건물을 후원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self caring, social skill등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p>	
<p>학급구성</p>	
<p>4개의 학급, 4분의 선생님과 구성</p>	
<p>연혁</p>	
<p>2000년 6월 2일부터 시작됨 애급 한인교회 후원과 같은 건물 내의 감리교회가 건물을 내주어 설립됨 정부허가 기관으로 시작하려 했다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교회 아래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20~22명의 장애인(정신 지체, 정신지체와 지체장애를 같이 가진 사람도 있다.) 1년 후에 27명의 아이들, 15명의 교사로 불어남. 현재 52명의 아이들, 20명의 교사, 8명의 직원으로 구성.</p>	
<p>운영</p>	
<p>한 달에 100LE, 다 지불하는 가정은 거의 없고 보통 30파운드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애급 한인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됨 여러가지 부분에서 Ruth수녀님(콕틱)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p>	
<p>대상</p>	
<p>5세~34세 (평균연령은 11~13세)의 정신지체 장애인 모슬렘 학생 2명이 있음(무슬림들도 기관이 기독교 부속기관임을 알면서 찾아오는 이유는 타 무슬림도 받는 기관의 비용이 너무 비싸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p>	
<p>교육내용</p>	
<p>self caring, social skill등을 가르침 1달에 1회 학부모 회의를 통해 집에서도 장애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시킴</p>	
<p>교사</p>	
<p>교사 분들은 Ruth수녀님(콕틱) 쪽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은 분들임 Ex>'필립'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7년째 계시고 24시간 장애인과 함께 지내면서 일하심.</p>	

E. 성공회

<p>School of nardeen association (날딘 청각장애인 학교)</p>	
	<p>위치 :</p>
<p>인터뷰 대상: 클레어 (날딘 청각장애인 학교 교장)</p>	
<p>시설개요</p>	
<p>이 시설은 청각장애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단체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통한 공동 생활을 통해 사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다..</p>	
<p>연혁</p>	
<p>1982년 설립 이집트 내의 복음주의 교단 지원 9명의 교사 51명 학생(2005-1월)</p>	
<p>운영</p>	
<p>원비는 원칙상 100파운드이지만 소수의 학생들만 모두 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안 형편에 맞게 낸다.</p>	
<p>교육대상</p>	
<p>4~6세의 아이들부터 16~17살까지 교육을 받는다.</p>	
<p>교육과정</p>	
<p>1. 3년의 기초 교육과정 맨 처음 청각장애아동이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3년의 기초교육과정을 통해 수화교육과 기본 아랍어 교육을 받는다. 그 후에 공교육과정을 시작한다. 2. 공교육과정 정부의 지원은 받지 않고 있지만(사설기관) 정부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교육기관의 커리큘럼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3. 나르딘 학교는 프라이머리 스쿨밖에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이곳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이후에 시험을 통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p>	
<p>특수교사, 부모 교육</p>	
<p>이곳의 청각장애인 대상 교사 훈련과정을 콕틱 교회내의 장애인 교사들도 수료하기도 하며 서로 돕고 있다.(매년 여름에 의사와 교수등 전문가를 모시고 수료과정을 진행) 부모들을 위한 일요일날 마다 교육(아이들과 수화로 대화할 수 있도록 수화교육)이 있고(교회에서) 한달에 한번 specialist 나 의사들로부터 부모교육이 있다.</p>	
<p>기독교 교육</p>	
<p>기독교 기관이라 크리스천만 수용한다. Sunday school 도 함께 운영 전국에서 아이들이 와서 모든 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제공되며 금토 주말에는 집으로 가기도 한다.</p>	
<p>직업교육</p>	

Vocational Training Center

설립자: Arre(네덜란드 선교사)와의 인터뷰

7년째 이집트에 머물며 이 일을 4년째 하고 계신다.

1998년부터 직업재활훈련으로 목공, 금속, 바느질교육을 시작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재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의 한 부분이 불편한 사람으로 파악하고,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바느질, 목공일, 금속 관련 일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은 정상인들이 만드는 것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질이 높음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이 있다. 교육을 통해 생산품을 만들면 사람들과 연결 되서 그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있으며 2년 전부터 이익이 나고 있다.

규모: 28명의 학생 (18명의 바느질, 7명의 목공, 3명의 금속)

F. 이슬람

Flower center
인터뷰 대상: Miss. 마루아



위치 :

시설개요

Flower center는 모슬렘이 운영하는 사설 장애인 교육기관이다. 기관 자체가 종교성을 띄지는 않고,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으며 장애인 개인당 부담하는 회비도 다른 곳에 비해 비싸 보인다. 여러 다양한 시설들(시청각 교육실, 컴퓨터 교육실, CP education(재활훈련), 치과시설, 재봉실, 카펫 workshop, 교실 등)이 구비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질 높은 장애인 교육시설의 예를 볼 수 있었다.

연혁

2000년부터 시작.

운영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는다.

한 달에 한 사람당 600LE씩을 지불한다. 가정 형편에 따라 일부는 1/2이나 1/4정도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제정후원을 받는다.

교육대상

정신지체 장애인(신체 장애를 동반한 경우도<CP등>.....)

들어올 때 간단한test를 거침.

시험결과에 따라서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과정

처음 3달 동안 self care 교육. 그 후 advance level을 결정한다.

그 후 speech, computer, activity

Academic(글쓰기, 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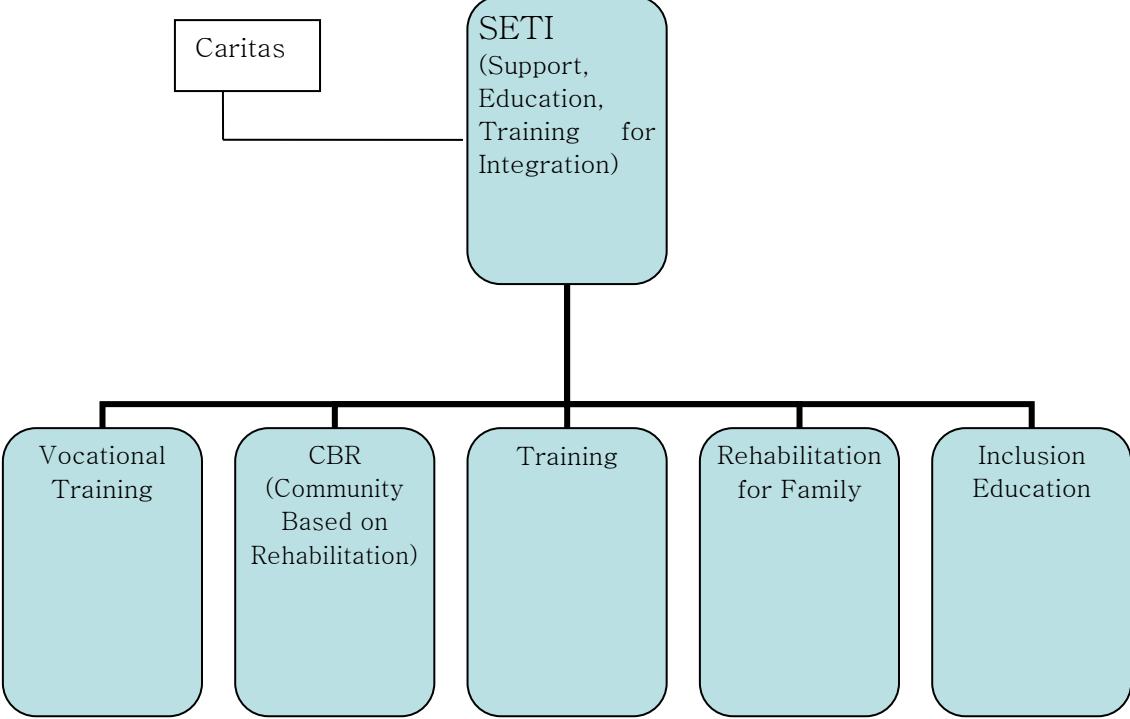
How to sell & buy

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program(camp, trip)

workshop을 통해 만든 제품을 아이들이 직접 나가 팔기도 한다.

ㄷ. 개인사설단체, NGO

A. 알렉산드리아 Caritas - SETI

<p>알렉산드리아 Caritas - SETI</p> <p>인터뷰 대상: 알프레드 조지 (director at the Department of Vocational Training) Dr. Mervat-CBR(Community Based on Rehabilitation)부서 책임자 Dr. Mary Halim - Department of Family Rehabilitation 책임자</p>	 <p>위치:</p>
시설개요	
SETI는 Caritas 의 여러 기능 부서 중 하나로 1989년 알렉산드리아에 SETI가 시작	
구성	
<p>알렉산드리아 main organization이다. 종교나 다른 색채를 띄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NGO 비영리 기관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정부 기관 아님).</p> 	
재정 운영	
<p>inside: donation, festival을 통해 바자회를 통한 재정 충당 outside: 다른 국제 기관이랑 연결하여 재정 지원 ex) 프랑스 기관과 연결되어서 재정 지원 받고, 그들과 연계</p>	
교육내용	
<p>* The Department of Vocational training 작업의 종류에는 금속, 목공, 바느질 workshop 등이 있다. Pre vocational training - 1.5년 아카데미 부분에서 학습 Main vocational work - 1.5년 동안 센터 안과 밖에서 훈련</p>	

그 다음 사회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훈련한다.

*** The Department of Integration Education(inclusion education)**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Primary school 과정을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 CBR(Community Based on Rehabilitation)**

1993년에 project를 시작

내용: 정부와 사회와 직접 연결하여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부서. 또한 Youth Center, 교회, 모스크 등을 이용하여 일함.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 와 The Ministry of Education 과 함께 일함.

조직:

3units – training, participating, awareness &preparation

6projects – 모든 프로젝트가 자원 봉사자에 의해서 진행된다. (일반 자원 봉사자들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technical team에 의해 조력을 받기도 함)

***클래스의 나이별 종류**

0~5세 – 별도의 프로그램과 activity

5~25세 –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 과정 있음

Prevocational class

Vocational class

Weekly Club(inside society)

부모를 위한 교육 – 자녀 재활을 위한 교육

Vocational training

프로젝트 내 지원 장애인 수: 2110명 (2004년도) – recorded number

1190명 – 실제로 지원한 장애인 수

*** The department of Family Rehabilitation**

가족(부모)이 장애가족을 위해 specialist 가 되어, 장애인들을 잘 다루기(treat)를 바라는 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가족들을 돕는다. 가족이 Daycare center에 대한 요구나 카운셀링의 필요가 있으면, Reception에서 도움을 준다. 0~4세 까지는 아이들을 평가(assessment)하고, 그 가족들을 교육한다. 예로, 가족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집에 가서 장애아동들과 그 일을 해보도록 한다. 가족들이 다른 가족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 아동의 형제들이 장애 형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Session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 Group session – 같은 필요나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 장애인들과 함께 모여 토의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인들끼리 어울리도록 한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잘 어울리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도와준다.

장애 가족들이 장애인들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잡지를 출판하는 것을 돕고, 관여한다.

Tip: 장애 아동들의 부모는 아동들을 무의식 중에 과보호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장애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Tip: 이집트 인구의 약 10%인 700여만 명 정도가 장애인이다. NGO, 정부 등의 사회 시설에 의해 도움을 얻고 있는 인구는 단지 장애인의 3% 정도이다. 아직 장애 시설과 복지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⑥ 이집트의 장애인 상황 분석, 정리(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ㄱ. 이집트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루스수녀님)

* 상이집트

대가족 중심인 상이집트에서는 크리스천이나 무슬림 모두 장애인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부른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보살핌이 충족된다.

* 하이집트

장애인을 신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돌봐줄 부모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들이 많다.

일부 센터들은 매우 비싸다. 그리고 어떤 센터들은 다운증후군 같은

센터는 많으나 장애인 가족을 충족시킬 센터를 찾기 어렵다.

ㄴ. 이집트 장애인 복지의 형태

처음 장애인 복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접근 할 때에 도입에서 밝혔듯이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공공복지단체, 종교단체 산하의 장애인 복지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단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 생각하여 정부관련 기관과 종교기관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집트의 복지 형태는 처음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팀이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일단 우리가 조사해 본 기관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구성원들로 나누어 보면 Ruth수녀님과 콥틱 데이케어 센터, St.Mark center의 콥틱교단, School of Nardin Association의 성공회, 모슬렘들로 구성된 Flower center, 장로교회 소속의 Fair Heaven, 천사원, 그리고 NGO 카리타스 소속의 SETI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정을 지원받는 것으로 따지면 Flower center는 개인 사설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 분야를 처음 접근할 때 콥틱교단의 Ruth수녀님을 통해 타 기관들을 연결하였다.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조사하며 알게 된 결과 많은 기관들이 콥틱교단과 카리타스에 관계되어 있었다. Ruth수녀님의 경우 콥틱교단의 장애인 사역을 맡고 있기도 하며 카리타스의 임원으로도 계신다. School of Nardeen Association과 천사원의 경우는 콥틱 안의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였다. 콥틱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인 대상의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 School of Nardeen Association의 훈련 프로그램을 받기도 한다.

정부기관-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조사하지 못함,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인 Rami와의 인터뷰)

사설단체

- 카리타스(SETI), Flower centert(재정적인 면)

종교단체

- 콥틱(데이케어, 세인트 마크)

- 성공회(School of Nardeen Association)

- 장로교(Fair Haven)

- 복음주의교단(조사한바 없음)

- 감리교(천사원)

- 이슬람(Flower center)

㉔. 이집트 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

(장애인들의 기관별 운영(외국인의 기관설립, Fund Raising) 및 상관관계)

시설

조사한 시설 중 School of nardeen association를 제외한 모든 시설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카리타스, Fair Heaven외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10~5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 청각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School of nardeen association의 경우 교사 1명당 6~7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기관들에서는 교사 1명당 보통 2~4명 정도의 학생들을 맡고 있다. 기숙사 시설, 신체장애 동반자를 위한 물리치료 시설

운영

대부분 종교나 다른 어떤 것에 상관하지 않고 후원을 받고 있었으며 특정 교회나 특정 나라에서 후원을 받는 단체(Fair Heaven, 천사원)도 있었다. Flower center외에는 대부분 1인당 한 달에 100~200파운드의 돈이 든다(Flower center의 경우 한 달 600파운드). 그 중 모든 돈을 지불하는 학생은 소수이며 대부분 지불 가능한 돈만을 받고 나머지는 외부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교사

콥틱 교회와 각 Fair Heaven의 경우는 단체만의 특별한 트레이닝 코스가 있다. Nardeen의 경우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청각장애인대상 교사의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콥틱 교회내의 훈련 프로그램을 받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 중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었다.

교육내용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에서는 공통적으로 self care를 가르치고 있었다. Flower center와 나르딘, 카리타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직업교육 내용을 보면 재봉기술, 목공예, 금속공예, 카펫제조 등이 있었다.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실제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곳도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㉕. 이집트 장애인 선교를 위한 제언

(향후 연관된 리서치를 위한 제언 및 장애인 복음화와의 연결성)

이집트(이슬람 국가)의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모슬렘에게 직접 종교를 전할 수 없다. 또한 선교사가 들어내놓고 사역하기 어렵고, 모슬렘과 선교적 마인드로 접촉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집트 사역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선교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집트 복음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이집트 장애인 사역이 갖는 입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집트 경제적 상황이 일인당 GDP \$1,000 정도(2004년)로서 우리나라 일인당 GDP가 몇 년 전 \$10,000을 넘은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근친혼 등의 이유로 정신 지체 장애인들이 200만 명(sister Ruth와 인터뷰)으로 다른 장애인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전체 장애인 수는 약 700만 명, 즉 인구의 10%

정도가 된다.(WHO 조사) 반면에, 장애인의 극히 일부인 단지 약 3%(Dr. Mary Halim과의 인터뷰) 또는 11000명(sister Ruth와의 인터뷰)만이 NGO 등의 사회 교육 및 재활 시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부유한 집의 장애인들은 돈을 지불하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지만,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시설 이용료가 월 400 이집트 파운드(2005년 1월 환율로 \$70정도, 7만원)를 넘는 경우가 많고, 이집트 봉급자 평균 임금이 400파운드를 넘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용료는 결코 싸지 않다. 따라서 대다수의 가정이 그들의 형제나 자녀에게 적당한 재활 및 기타 교육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음은 분명하다. 높은 재활비 및 교육비와 수적으로 부족한 사회 복지 기관을 생각 할 때, 이집트 장애인에게 도움의 손길은 절실하다.

MFR 7기 리서치팀이 조사한 기관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 보조 및 지원 기관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종교와 상관 없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Caritas-SETI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비영리 기관과 영리 장애인 기관인 Flower center 등이 존재한다. 종교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콥틱 기독교, 모슬렘, 성공회, 개신교 등을 배경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시설들이 있다. 성공회가 기독교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The school of Nardeen Association이 있다. 선교적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장로교 배경의 천사원과 Fair Heaven, 콥틱 배경의 St. Mark Center, Coptic Day Care Center 등의 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지니지만, 기독교 장애인 뿐 아니라 모슬렘 장애인들도 수용하고 있다. 사라이 교회의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Fair Heaven은 70(?)%의 모슬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기독교적인 색채를 띄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다. Fair Heaven보다 규모가 작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천사원도 두 명의 모슬렘 아이가 있고, 기독교적인 비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주당 몇 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다.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이상적이지만, 환경적인 요소로 모슬렘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활 및 기초 교육을 하며, 그들과 삶을 나누는 것으로 장애인들을 섬기는 크리스천들 마음 속 예수님 사랑이 시나브로 모슬렘 장애인들의 삶에 은은한 향기로 영향을 미치는 될 것은 희망할 수 있다. 여기에 장애인 사역의 장점이 있다. 비즈니스, 정치적 교류, 관광의 목적,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삶에 쉽게 스며들어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장애인 사역은 모슬렘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회 깊숙이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콥틱 교회의 Ruth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이 칼이 조금만 베여도 나의 관심은 집중되기 마련이다. 우선 피가 나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손가락 주변을 감싸 안는다. 얼굴을 찡그리며 눈은 상처난 손가락을 바라보고, 심장은 박동수가 빨라지며, 온 몸은 아픈 그 손가락을 위해서 전율한다. 그렇다면 육체가,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로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고통을 나누며, 돕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이집트는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포교를 목적으로 기독교인이 활동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반갑게도, 현지 콥틱교회의 이름으로, NGO 단체 이름으로 외국인이 장애인 복지 기관을 등록하여,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Coptic Day care center를 살펴보면, 일반 영리 장애인 시설에 400파운드 정도의 돈은커녕, 생계비를 유지하기 힘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Ezbat El Nakhil역 근처(쓰레기 마을 내 위치)에 복지관을 세운 것이다. 장애인들로부터 돈을 낼 형편이 되는 만큼만 받고(100파운드 미만)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돌본다. 이와 같이 콥틱교는 작은 규모의 소자본 center들을 장애인 시설이 요구되는 지역에 설립하여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center들을 벌써 여러 군데 세운 바 있다. 천사원의 설립 배경을 보면, 현지 감리교회 건물을 빌려 한인 교회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선교적 미

션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약간의 자본의 장애인들의 마음이 있으면, 외국인으로서도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고, 이들과 어울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은 많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지 어떤 목적(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접근해야 옳다. 이집트의 상황은 예수 믿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할 수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더욱이 모슬렘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라는 매체를 통하여 모슬렘들과 보다 가까워지고, 끝없이 이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 나누어주며, 도움을 주면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다. 크리스천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다가서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곳에 함께 하시고, 입으로 전파하는 것 이상으로 모슬렘 장애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집트 인구의 약 10%인 장애인들과 그 형제, 부모, 친척들을 포함하면 이집트인 어느 누구도 장애인과 무관할 수 없는 이집트 현실 속에서 장애인 선교의 시작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슬람 땅과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전임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3개월 6개월 정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런 시설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면, 선교와, 이집트 사역자와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과, 본인에게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된다.

주제 보고서 평가 (리서치의 한계점)

장애인 시설들을 조사하였지만, 장애인 시설 현황만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집트의 장애인 현황 및 이해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수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역하는 분들의 일과 수백만 명 장애인들의 삶을 3주 동안 조사하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살펴본 몇 단체들을 통해서 이집트 장애인 현주소를 설명하려고 한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장애인 리서치를 앞으로 하실 분들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정부 또는 상설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 통계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최근의 통계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리서치를 계속할 때는, 정부의 통계 자료를 후쿠마(정부청사)에 문의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고(비록 그들의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질지라도), WHO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집트 내에 거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단체는 CARITAS-SETI임으로 이 단체에 자료 요청을 하고, 이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법은 어떠한가, 장애인 법이 현실성이 있는지 분석하며,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법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셋째, 우리의 조사가 기관 조사에 치우쳐져 있다. 우리가 조사한 기관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하여도, 장애인 본인의 입장을 알지 못하면 공허한 자료 조사일 수 있다. 장애인과 인터뷰 하며 그들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뷰 하려고 했던,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장애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집트 상황하의 장애인 치료와 재활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700여만 명의 이집트 장애인들 중 약 3%정도만 국가나 NGO 사회 기관에 의해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97%의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치료 받고 있거나, 재활하고 있는지 충분히 관심 요소가 있다. 나아가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3주 동안의 짧은 리서치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리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한 보고서에도 수치상, 내용상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질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다. 장애인 리서치나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지적과 충고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읽는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보고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